

제목 : 모세의 기도
본문 : 출 17:8-16

시작찬송가 : 369(새218), 384(새585), 390(새352)
현금찬송가 : 408(새302), 487(새369), 511(새314)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을 때 군사를 소집해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그에게 의지할 때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으로가 아니라 기도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 전쟁과 기도

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 가까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피곤하여 낙오된 자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한데서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민족과의 첫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중생(출애굽)한 생명이 사탄과의 첫 싸움에 부딪친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문제와 시험 앞에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신 25:17-18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②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전방에서 싸울 때 후방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기도를 실 때 패배했다는 것은 행동과 기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행동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삼상 1:17-18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단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 모세의 기도

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적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적과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지팡이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간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권능의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들려진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출 14: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② 모세는 높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고, 응답하시며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사 56:7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③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옴에 따라 전황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인간들이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대하20:15(하반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④ 모세가 전쟁을 위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므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행 1: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의 한마디 : 모세처럼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천안함 문제가 잘 해결 되도록.
5.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